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왜관수도원 내 옛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리오너라.” (마태 22,1-14 참조)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량소비의 문화 속에서 소비자의 입장에 자주 서다 보니 이 말이 아주 당연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분, 우리 하느님 한 분 뿐입니다. 우리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꼼짝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이사 25,6-10ㄱ **제2독서** 필리 4,12-14,19-20 **복음** 마태 22,1-14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화답송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저의 큰 탓이옵니다.”

김윤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자인본당 주임

● 미사통상문에서 :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심리학에서 :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나서 세 살이 될 때까지는 생명과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는 사랑과 존중의 욕구가 강하며,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는 힘과 통제의 욕구가 강합니다. 이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면 아이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올바르게 자라지만, 이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되고, 그것이 마음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보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보채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명과 안전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그 욕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집착합니다. 큰 자동차, 큰 집, 높은 지위, 사회적인 명망가들과의 연결끈 등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그 욕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 이의 사랑은 진실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인하려 듭니다. 힘과 통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 100% 확고한 안전성을 언제까지나 보장받고 살 수 있습니까? 또 그 누가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끊임없이 곁에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쉴 새 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 연중 제28주일(가) 미사 전례 말씀에서 : 제 1독서(이사 25,7)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우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공동번역).”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새번역).” ‘너울’ ‘보자기’ ‘덮개’란 말로 상징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마태 22,12) “예복도 입지 않고(공동번역).”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새번역).” ‘예복’ ‘혼인 예복’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 어느 신부님의 낫두리 중에서 :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매일 어김없이 미사성제를 통해 그 잔치판이 재현(?)되고 빵과 포도주와 노래가락(성가)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지만, 잔치판이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웃음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외우는 단조로운 미사 경문만이 있을 뿐이다. 잔치 분위기는 사라지고 엄숙하고 경직된 의식만이 있을 뿐이다. 혼인 잔치가 아니라 이진 영 장례식의 분위기만이 있을 뿐이다.

● “전능하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니, 저희가 삶과 역사 안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뵈고,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궤산**

최창덕 신부의 전례 이야기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최창덕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가톨릭신학원 원장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노래하거나 낭송할 때, 우리는 마치 공동 죄 고백을 할 때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잘못이나 죄의 용서를 간청하는 청원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송은 죄 고백과는 달리 아버지이신 성부께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한 외침입니다. 자비송 환호는 예리고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 바르티매오의 외침과 관련시켜 볼 수 있습니다(마르 10,45-52). 바르티매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걸을 지나신다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습니다.

자비송의 첫 마디 “키리에(주님이시여)”는 미사 집회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고백이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하신 그리스도님의 약속에 대한 공동체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키리에’라는 환성으로써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키리오스(주님)’라는 용어는 본래 동방과 로마 문화권에서 왕이나 황제를 경배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로마제국 시대에 황제가 어떤 지방을 방문하면 군중들이 “키리에, 엘레이손!”하고 외쳤습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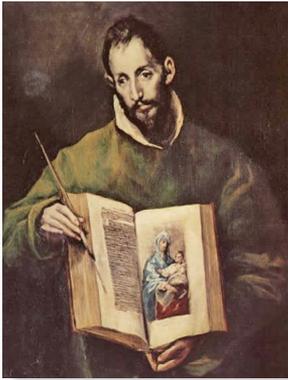
말은 “황제시여, 굽어 살피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가 미사에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환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미사에 참례한 모든 이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님께 이와 같은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한편 박해시대인 초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키리에’는 참된 신이신 그리스도께 향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자비송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의 머리시요 영광중에 계신 왕이시며 주님이신 키리오스, 그리스도님을 환호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청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송은 근본적으로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간청하는 애소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죄인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여기 계심을 환호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자비송은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밝고 힘차게 바쳐야 하며, 기쁨과 존경을 동시에 표시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송이 청원을 담고 있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이 청원은 승리자시요 왕이시며 죄악과 죽음을 쳐 이기신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찬미인 것입니다. **▶**

이달의 성인

주님의 위대한 스토리텔러

성 루카(복음사가, 증거자, 1세기, 10월 18일)



신약성경의 4대 복음서의 저술가 가운데 마태오와 요한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셨지만 마르코와 루카 성인은 그 다음 세대로 바오로 사도와 함께 다닌 제자들이십니다. 특

히 루카 성인께서는 복음사가 중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하여 바오로 사도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30년 가까이 전 교활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바오로 사도의 권유에 따라 복음서와 더불어 사도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사도행전을 집필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의 특징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의 잉태부터 어린 시절의 일화가 소상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것,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성녀를 방문하신 것,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 등은 루카 복음에서만 전하는 일화들로서 이후 성화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업이 의사였던 성인께서는 특히 병자들에게 대한 치유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를 복음서에 많이 수록하셨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성인께서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초상화를 처음으로 그린 화가였다고 합니다.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장면들이 마치 그림으로 보듯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어쩌면 그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초창기 교회사를 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바오로 사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오로 사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루카 성인 자신에 대한 구절은 한 곳도 찾아 볼 수가 없을 만큼 겸손하셨던 성인께서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첫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으며 후세를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성인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집필가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신 이 후에도 그리스로 건너가 전교를 하시고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 주님을 위해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며 복음을 전하신 성인께서는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성인의 유해는 콘스탄티노플 열두 사도 성당에 안치되어 있으며, 의사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필름**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전쟁터에도 하느님이 계시니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2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평안도 벽동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병사들은 빵과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군중신부님이 같이 포로로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세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부러진 나뭇조각으로 엮어 만든 십자가 앞에서 신령성체를 했습니다. 형편없는 환경에서 노역과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다 죽어가는 몸으로 예절을 이끄는 군중신부님의 기개에 병사들은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군중신부임에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뛰어들어 수십 명의 병사를 구조하고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에밀 카파운 신부님(1916~1951)은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기도 아프면서 병사들을 위해 음식을 양보하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해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휴전을 2년 앞둔 5월 23일 상처가 도져서 쓰러졌는데, 자기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병사들을 도리어 위로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뿐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유해는 지금도 압록강변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1993년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부님을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하셨고, 종전 60주년인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신부님에게 미국의 최고 훈장인 명예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10월 12일	성 막시밀리아노(주교, 순교자, 로흐, 284년), 성 모나(주교, 밀라노, 249년) 성 발프리도(주교, 요크, 634~709년), 성 세라피노(수사, 증거자, 아스콜리피체노, 1540~1604년) 성 에드윈(왕, 순교자, 노섬브리아, 633년), 성녀 헤를린다(수녀원장, 아이크, 750년경)
10월 13일	성 에두아르도(왕, 증거자, 영국, 1003~1066년), 성 제랄도(평신도, 오릴락, 855~909년) 성 카르포(바오로의 제자, 트로아스, 1세기), 성 콜만노(순교자, 스톡케로, 1012년) 성 파우스토(순교자, 304년경)
10월 14일	성 갈리스토 1세(교황, 순교자, 222년), 성 가우덴시오(주교, 순교자, 리미니, 360년) 성 부르카르도(주교, 뷔르츠부르크, 754년), 성녀 포르투나타(동정 순교자, 303년)
10월 15일	성 에우티미오(수도원장, 테살로니카, 824~898년), 성 칸나토(주교, 마르세유, 5세기) 성녀 데레사(설립자, 신비가, 교회학자, 아빌라, 1515~1582년)
10월 16일	성녀 마리아 마르가리타 두비유(과부, 설립자, 캐나다, 1701~1771년) 성 제라르도 마젤라(수사, 1726~1755년), 성녀 헤드비지스(과부, 수녀, 1174~1243년) 성 베르트란드(주교, 툴루즈, 1123년)
10월 17일	성녀 마멜타(순교자, 페르시아, 344년경), 성녀 안스트루다(동정녀, 랑, 700년경) 성 에텔레드(왕자, 순교자, 켄트, 670년경), 성 이나시오(주교, 순교자, 교부, 안티오키아, 35~107년) 성 리카르도 그윈(교사, 순교자, 영국, 1537~1584년)
10월 18일	성 유스토(소년, 순교자, 보베, 287년), 성 루카(복음사가, 증거자, 1세기)



■ 4대리구 교구장대리 취임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죽도성당에서 원유술(야고보) 신부의 4대리구 교구장대리 취임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 근화여중 65주년 및 근화여고 50주년 개교 기념미사



■ 제1회 노인의 날 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근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근화여중 65주년 및 근화여고 50주년 개교 기념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일(목)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제1회 노인의 날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10월은 전교의 달이자 ...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안내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3일(월) 10:00 월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0월 18일(토) 11:00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프란치스카눔 평화미사	10월 18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미사	10월 20일(월) 15:30 교구청교육원대강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3일(월) 11:30 범어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모임
 일시: 10.19(일) 14:00,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정기모 신부님과 함께하는 산내치유피정
 기간: 10.21(화)~22(수),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0.17(금)~19(일)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카타리나, (010)4515-1114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길' 기도모임
 일시: 10.19(일) 14:00, 상동성당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330-3104

엠마오 피정(음악 피정)
 기간: 10.24(금) 20:00~26(일) 15:00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여성 / 3만 5천 원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본원(안동)
 신청: 송세실리아수녀, (010)5517-8833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Fat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10.25(토)~26(일)
 대상: 34세 미만 미혼남녀 / 화바: 2만 원
 문의: (010)8920-9423

교육 | 모집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 세미나
 일시: 10.16(목) 14:00
 장소: (광주대교구)살레시오고등학교 최양업 홀
 주제: 죽음의 문화와 생명 교육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을 위하여)
 대상: 교사, 학부모 / 문의: (02)460-7641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설명회: 2차 10.18(토) 14:00, 대건고
 원서접수: 11.4(화)~7(금)
 입학문의: 638-9332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베네딕도 청년성가단 3기 모집
 일시: 매주 월 19:30, 삼덕성당
 대상: 전례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010)5918-3014

성모기사회(작은꽃모임) 회원 모집
 일시: 매월 세번째 토요일 19:00

장소: 프란치스카눔
 대상: 20세 이상 청년 누구나
 문의: 최한수(알베르토), (010)7169-1671

오순절 평화의 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30
 문의: 김명옥마리아, (010)5529-3186

부여 백제 가족 연수
 기간: 10.25(토)~26(일) / 카페: 우아침참조
 장소: 부여관광호텔,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등
 대상: 원하는 가족은 누구나 / 개인도 가능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서강대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일시: 10.27(월)~11.6(목)
 전형일: 11.15(토)
 모집: 석사 00명 / 석박통합 및 박사 0명
 문의: <http://gsot.sogang.ac.kr>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제주기사사도회, (064)758-6476

요양보호사 국비 지원
 한다 교육생 한다 취업률
 한다 연속합격률
 ▶요양원 · 방문요양 부설운영
사명요양보호사교육원
 대구 053)791-7677
 경산 053)813-7343

국내 최초 「아픈중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병리전문외 이종구 (마티아) Tel. (053)755-7775
 진 대구의료원 원장 www.ldkclinic.com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코비한의원
 대구수성점 대표원장 이 판 제(주까)
 ☎ 053-753-9795 수성구영역 4번 출구 앞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알드레아)

큰사람, 큰 믿음!
대구안과 이전 확장
 DAEGU EYE CLINIC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딩),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 (053)651-2233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4일) / 오이타, 유우인 (4일)
 ※ 출발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형(요세피나)
 이 범 수(대견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9(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10월 가나 강좌

일시: 10.19(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미술기획 창립40주년기념전 및 100주년 기념
대성당 '사랑의 성전' 건립기금 마련전**

일시: 10.7(화)~12(일), 대백프라자 갤러리

대구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 대음악회

일시: 10.16(목) 19:30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입장료 무료)
 문의: 850-3803 / (010)7142-1061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교수 협연

대구평화방송 개국18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0.17(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영록, 소냐, 유엔젤보이스, 강혜정
 예매: 티켓링크, www.dgpbcc.co.kr
 전화예매 / 문의: 251-2610(전석2만 원)

교육 | 모집

25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10.16~11.20(매주 목) 9:30~14:30
 장소: 가창성당 / 회비: 10만 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0.12(일) 15:00(회비: 1만 원)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전례 꽃꽂이 연구회 강좌반 모집

기간: 9.15(월)~10.31(금)
 문의: (010)3546-8339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신앙특강

일시: 10.18(토) 10:00
 장소: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그리스도인의 미션
 강사: 인마누엘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월간 <참소중한당신> 사은 특강

일시: 10.23(목) 14:00
 장소: 신평성당 (구미)
 강사: 차동엽 신부, 대상: 모든 신자
 문의: (031)985-2808, 2835

**대구대교구 가톨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모집**

분야: 각 파트 기악 전공자 0명
 지도신부: 김종현 신부

홈페이지(www.catholicphil.org) 참조
 문의: (010)8996-8675

새빛학교 ABC 기초 영어반 모집

일시: 매주 화, 목요일 13:00(주2회)
 문의: 476-3100(1호선 교대역)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대학생: 1차 1.3(토) / 2차 2.28(토) 8주 이상
 초·중·고캠프: 1.2~30(4주) 선착순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체험활동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채용 | 안내

범어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마감: 10.17(금)
 문의: 사무실, 744-1394

월간 <빛> 사무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마감: 10.21(화)
 문의: 총무부, 250-3158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영순(아네스), 차한혁(이냐시오)
 문의: 253-9550

해아림한의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보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권학원옆

**콜동중, 민속중
고가 매입**
 문송갤러리 김 대 윤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감정)
 ☎ 053)474-305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KE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훌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 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광천 **이조맛김**
 김 · 건어물 · 찹쌀류 판매
 성전건립기금 마련 및 바자회
 성모회 · 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금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위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윤원희 성명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 의 윤 원 희(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